

불어 형성기의 자음변화 연구

장 재 성

(불어불문학과 조교수)

I. 序

현대 불어는 그것의 조상 언어라고 할 수 있는 라틴어와는 완전히 다른 언어이다. 라틴어를 langue synthétique라고 한다면 불어는 langue analytique라고 규정 지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같은 변화는 언어학적 최소 단위인 phonème의 변질에서부터 시작된다.

하나의 phonème은 뒤에 오는 모음의 성격에 따라 조음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여러개의 결합 변이음(variantes combinatoires)을 형성할 수가 있다. 이 결합 변이음들은 의미 분화의 능력은 없지만 오랜 세월에 걸쳐서 조금씩 조금씩 변화하여 완전히 다른 음으로 될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것이다. 라틴어에서 불어로의 변화는 거의 대부분이 축소 지향적인 변화이다. 따라서 한 단어내의 여러음들이 변질되고 소실되는 과정을 겪는데 모음의 경우는 악센트(라틴어의 강세 악센트)와의 상관적인 위치에 따라 결정이 되고 자음의 경우는 악센트와의 상관적인 위치와 더불어 음절 내의 위치와도 관련이 있다. 이러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어 어떤 음은 약화되어 소실되고 어떤 음은 변질되어 보존되고 어떤 음은 그대로 보존될 수가 있었다. 여기에서는 라틴어에서 불어로 진화하는데 있어서 한 자음이 겪는 가장 대표적인 변화들인 유성음화(sonorisation), 마찰음화(spirantisation), 구개음화(palatatisation) 등의 음운 변화에 대한 자음들의 진화 과정을 알아보면서 그 자음의 단어 내에서의 위치와 음절 내에서의 위치가 진화에 미치는 상대적 강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II. 라틴어의 자음 체계

라틴어의 자음들은 조음 방법(mode d'articulation)과 조음점(point d'articulation)에 따라서 다음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다.

1. 구개음(연구개, 경구개) : c, g, i¹⁾
2. 치음 : t, d, s, r, l, n
3. 순음(양순, 순치) : p, b, f, u¹⁾, m

(* 본 논문은 1988년도 문교부 학술연구조성비 지원에 의한 연구논문임.)

- 1) 자음 i와 u는 반모음(sémi-voyelles)으로, i는 y의 음가를 갖고 있었고 u는 w의 음가를 갖고 있었다. 철자상으로는 각각 j와 v로 표기되었다.

이 음들을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조음방법 \ 조음점	순 음		치 음	구 개 음	
	양 순 음	순 치 음		경 구 개 음	연 구 개 음
파열음(폐쇄음)	p b		t d		c g
마찰음	u	f	s	i	
유음			l, r		
비음	m	n			

Ⅲ. 유성음화(sonorisations)

라틴어에서 불어로 진화하는데 있어서 가장 먼저 겪는 변화가 유성음화이다. 하나의 자음이 모음 사이에 놓이게 되면 짧은 시간 안에 성대가 진동→무진동→진동의 과정을 겪어야 하므로 자음은 앞뒤의 모음의 영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모음 간의 위치는 무성 자음에게는 유성음화를 겪게 되는 불안정한 위치가 된다. 유성음화는 무성음의 약화(affaiblissement)의 제 1 단계이다.

1. s의 유성음화

모음 사이에 놓인 s는 z로 유성음화 된다. 철자상으로는 변화가 없다.

phasianum>faisan, rosa>rose
basiare>baiser, basis>base

2. p, pr, pl의 유성음화

무성 양순 파열음은 해당 유성음으로 바뀐다.

lupu>lobu, ripa>riba
capra>kabra, duplu>doblu²⁾

폐쇄음+l,r의 경우 앞의 폐쇄음이 l과 r이 아닌 다른 자음 앞에 있는 경우와는 달리 완전한 불파 혹은 내파(implosion)의 위치에 있지 않다. 이것은 l과 r이 유음으로서 성절적 특징을 갖고 조음상 aperture가 모음과 가장 근접한 자음이기 때문이다.

2) 유성음화 단계의 단어들은 변화가 다 완성된 것이 아니고 이후에 다시 마찰음화와 탈락 등의 과정을 겪을 수 있다. 여기서는 편의상 유성음화까지만의 변화를 표시해 놓았다.

3. t, tr의 유성음화

무성 치조 파열음도 해당 유성음으로 바뀐다.

vita > vida, patre > padre
cogitat > koyyidat, imperatore > emperedor

4. k의 유성음화

무성 연구개 파열음인 k는 다음에 오는 모음에 따라 변화되는 과정이 달라진다. 전설모음인 i, e 앞에서는 유성음화 이전에 구개음화가 선행된다.

- 1) paroxyton의 악센트 직전, 직후에서 유성음화는 치찰음화(assibilation) 뒤에 일어난다.

placere > plaišere > plaižere³⁾
voce > voise > voize

- 2) 악센트 앞 음절에 놓여 있을 때는 구개음화가 일어나고 유성음화는 일어나지 않는다.⁴⁾

amicitate > amikitate > ...amiçitite > amišitate... > amistié

후설모음인 a, o, u 앞에서 k는 해당 유성음 g로 변한다.

baca > бага, amicu > amigu
facunt > fagunt, securu > seguru
locu > luogu, preco > priego

후설 모음 앞에서 유성음으로 변한 k는 이후에 거의 탈락하게 된다. 즉 전설모음과 이웃하는 경우는 강화(renforcement)의 일종인 구개음화 후에 유성음화를 겪으므로 탈락되지 않으나 후설 모음 앞에서 약화된 유성음화를 겪은 k는 거의 전부 탈락한다. 이는 라틴어의 음운변화에 있어서 후설 모음이 전설 모음보다 더 쉽게 인접 자음을 탈락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

5. kr의 유성음화

원래의 kr(lacrima, sacramentu 등)과 어중음 소실(syncope)⁵⁾에 의한 kr(dikre, dukre,

3) 모음 밑의 ˘은 악센트의 위치를 나타내고 s와 z 위의 ˘은 파찰음(affriqu )을 나타낸다.

4) k와 t 밑의 ˘ 표시는 구개음화를 나타낸다.

5) 어중음 소실(syncope)은 주로 proparoxyton의 p nulti me에서 일어난다.

perjculu > periklu, calidu > kaldu

즉 어중음 소실은 가장 약한 모음에 영향을 미치는데 제일 처음에 posttonique, 그 다음에 pr tonique 마지막으로 finale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어중음 소실이란 다름아닌 강세음절을 탈음하기 위해 요구되는 노력이 바로 이웃하는 음절의 약화를 수반하는 현상이다.

oculu > oculu, v ndere > vendre
sanitate > santate, simulare > semlare

fakre)는 그 변화 과정이 같다.

g와 k는 자음 앞에서 ʔ와 χ로 되어 요드 y로 변한다.

gr>rr>yʔ
 kr>Xr>qr>yʔ
 flagrat>flayre, agru>ayre
 lacrima>layrme, sacramentu>sayrement

이상의 각 자음의 유성음화 과정에서 모음간에 있는 무성 폐쇄음은 내파의 위치에 있지 않는 음절의 첫 음임에도 불구하고 양쪽에 인접해 있는 모음의 영향으로 조음력이 약화되어 진다. 따라서 모음간의 위치는 한 자음이 가장 쉽게 음운변화를 받을 수 있는 위치이다. 또한 자음군의 유성음화의 경우는 전부 두번째 음이, 즉 앞의 자음을 폐쇄시킬 수 있는 위치에 놓여 있는 자음이 유음계열인 l과 r인 경우임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앞에서 설명했듯이 l과 r의 조음상의 특성때문에 앞의 자음이 완전히 내파의 위치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자음군 전체가 모음 사이에 놓여서 양 모음의 영향을 받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IV. 마찰음화(spirantisations)

파열음의 마찰음화는 유성음화와 마찬가지로 음의 약화의 결과이다. 그러나 마찰음화는 유성음화와는 달리 반드시 모음간의 위치와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다. 내파음의 위치에 있던 유성이든 무성이든 마찰음화함을 볼 수 있다.

1. 자음 앞에 있는 k와 g의 마찰음화

1) 악센트 뒤에서

factu>faχtu>façtu>faytu>fayt>...fait
 frigda>frerda>freyda>...freide(froid)
 laxat>laχsat>laçsat>laysat>...laise(laisse)

2) 악센트 앞에서

laxare>laxsare>laçsare>laysare>...laisier(laisser)
 lactuca>laxtuga>laçtura>laitura>...laitue
 cactivu>kaxtivu>kaçtivu>kaytivu>...chaitif(chétif)

이상에서 보듯이 연구개 파열음 k와 g가 내파의 위치에 놓이게 되면 단어 내의 악센트와의 상대적 위치에 상관없이 또한 인접 모음의 전·후설성에 상관없이 약화의 과정을 지속적으로 겪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라틴음의 진화에 있어서 내파의 위치가 가장 불안정한 위치로서 가장 쉽게 음운 변화를 겪으며 또한 탈락되기 쉬운 위치라는 것을 말해준다.

2. 자음 앞에 있는 t, d, p.

t, d, p 역시 내파음의 위치에 있게 되면 직접적으로 마찰음화 현상을 일으킨다.

pt > \varnothing t > ft, ps > \varnothing s > fs
 rupta > rofte > rote...route
 capsa > \hat{c} afsa > \hat{c} hase >... \hat{c} hâsse

악센트 뒤에서 n앞에 놓인 t와 d는 마찰음화 된 후에, 이화되는데 이것은 n과 같은 동위 치음이기 때문이다.

retina > \hat{r} etna > \hat{r} edna > \hat{r} e \hat{d} na
 \hat{r} e \hat{d} na > \hat{r} ezna >...resne

3. 무성음이 유성음으로 약화된 이후 모음간 유성음이나 br, dr와 gr 등은 또다시 약화가 되는데 자음의 조음점은 변하지 않지만 조음력이 다시 느슨해져서 마찰음이 된다.

lupu > lobu > lo β o, ripa > riba > ri β a
 labra > la β ra, capra > ka β ra > \hat{c} ha β ra
 petru > piedru > pie δ ro >...pierre
 patre > padre > pa \hat{c} ôre >...père
 ridere > ri δ re > rirre >...rire

br, dr, gr의 경우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파열음이 유음(liquids)인 r의 앞에 있으면 다른 자음 앞에 있을 때와는 변화의 과정이 다름을 알 수 있다. 즉 파열음이 r이 아닌 다른 자음 앞에 있으면 유성음화를 거치지 않고 직접 마찰음화가 되나(N-1, N-2) r 앞에 있는 경우는 유성음화부터 먼저 일으킴을 볼 수 있다. 이것은 r이 유음으로서 모음과 같이 [+voc]의 성질을 갖고 있으므로⁶⁾ r 앞의 파열음이 완전한 내파의 위치에 있지 못한 때문으로 생각된다.

4. 모든 자음 중에서 마찰음은 조음력이 가장 약한 자음들이다. 그러므로 마찰음은 특히 악센트나 이웃하는 음들의 영향에 아주 민감하다.

4-1. 양순 마찰음은 모든 마찰음 중에서도 가장 약하다.

모음간의 b가 β 로 약화되는 것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그런데 이 β 는 순치음 v로 다시 강화된다.

6) 유음은 모음성과 자음성을 모두 갖고 있다.

	모음	자음	유음	전이음
모음성	+	-	+	-
자음성	-	+	+	-

faba > faβa > fava

무성음 p에서 유성음화된 b도 마찬가지이다.

1) 악센트 뒤에서

ripa > riba > riβa > riva > rive
lupa > loba > loβa > lova > louva > louve

2) 악센트 앞에서

crepare > ...krever
sapone > ...savōn

악센트와 맞붙어 있는 자음은 떨어져 있는 자음보다 조음상 훨씬 강한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경우 조음상 약화되었다가 다시 강화되는 것은, 만일 계속 약화되어 탈락되어 버린다면 그 단어의 존립자체가 위협을 받게 되므로 가장 약화된 양순 마찰음에서 다시 강화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어중음 소실(syncope)에 의해 다시 자음과 인접하게 되는 마찰음은 내파의 위치에 놓이게 되는데 이 경우 거의 탈락되어 버리고 만다.⁷⁾

sapit > sevet > seft > set
tepidu > tjevede > tjevde > tjede
lupos > ...louvos > loufs > lous

이것은 앞에서 증명되었듯이 내파의 위치가 통시적 변화상에서 볼 때 가장 약하고 불안정한 위치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런데 양순 무성 마찰음 φ는 다음의 두가지 형으로 진화한다.

scrofa > skroφa > eskroa >⁸⁾...écrou
deforis > deφoris > deores > dehors
stephanu > estieβanu > estievene

첫번째와 두번째 예는 양순 무성 마찰음 φ가 후설 모음 o와 인접해 있는 예이고 세번째 예는 앞과 뒤에 후설모음 o나 u가 없는 예이다. 즉 불어로의 진화에서 약화된 마찰음이 원순성을 지니는 후설 모음과 만났을 때 탈락되어 버림을 알 수 있다.

4-2. 구개음은 많은 경우 마찰음화 보다 구개음화를 먼저 겪으므로 대부분 구개음화에서 다루어진다. 그러나 모음 앞에 있는 제1 g와 후설 모음 앞에 있는 제2 g의⁹⁾ 경우는 마찰음

7) 이 경우의 어중음 소실은 예에서 볼 수 있듯이 paroxyton과 proparoxyton에서 악센트 뒤에서 일어난다.

8) eskroa의 앞에 붙은 e는 Romania 지역의 언어 진화에서 볼 수 있는 어두음 첨가(prothèse) 현상으로서 이것은 주로 sk, sp, st 앞에 i나 e가 붙는 현상을 말한다.

9) 제1 g는 본래의 음이고 제2 g는 파생된 g다. 전설 모음 앞에 있는 k는 구개음화한다.

화를 먼저 겪으므로 그 이후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전설모음 i나 e 앞에 있는 g는 다음과 같은 진화과정을 겪는다.

rege>reʎe>reyye>...rey>rei>...roi
 pagese>paʎese>payyese>payeise>...pais>...paix

g는 모음 사이에서 마찰음화 되고 이 마찰음은 전설 모음의 영향으로 조음점이 앞당겨져서 구개마찰음 y가 된다. 그런데 이 구개마찰음은 라틴어의 음운체계에 따라 동일음 중복(gémination)이 된다.¹⁰⁾ 그리고 그 후에 모두 약화되어 모음 i로 변한다. 즉 전설 모음 앞에 있는 g는 해당 무성음 k와는 달리 모음 사이에서 지속적인 약화과정을 겪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a 앞에 있는 g도 마찰음화 된 후 조음점이 앞으로 이동하여 동일음 중복이 되고 다시 약화되어 모음 i로 되는 과정을 겪는다.

plaga>plaʎa>playya>...playe(plaie)
 paganu>paʎanu>payyanu>...paiien(paiien)
 negare>neʎare>neyyare>...neiier(nier)
 castigat>kastiʎat>ĉhastiiyat>...ĉhastie(châtie)

위의 예에서 보듯 라틴 모음 체계 중에서 a는 중설 모음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 a의 영향력은 후설모음보다 전설 모음쪽으로 치우쳐 있음을 알 수 있다.

후설 모음 o, u 앞에 있는 g는 모두 탈락된다.

agustu>aʎostu>aost
 fagu>fau, lego>liego>lieo>lie

첫째 예와 둘째 예는 엄밀한 의미에서는 진화 과정이 같지 않지만 결과가 같으므로 같이 취급했다. 이상에서 보건대 유성 구개 파열음 g는 양순음과 같이 약화의 과정에서 후설모음과 만날 때 약화의 마지막 단계인 탈락의 과정에까지 이르게 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k가 유성화된 제2 g의 진화에서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

1) i, e, a+g+a인 경우

baca>baga>baʎa>baya>...baie
 pica>piga>piʎa>piya>pie
 precat>priegat>prieʎat>prieyat>...prie
 decanu>deganu>deʎanu>deyanu>...deiien(doyen)

2) o, u+g+a인 경우

10) 라틴어에서의 동일음 중복은 발음상에서만 나타나고 실제 철자상으로는 나타나지 않는다.

locare>logare>loɣare>loer
 carruca>karruga>ĉharruɣa>ĉharue
 auca>auga>oɣa>oe>...oie
 lactuca>laytuga>laytuɣa>...laitue

k에서 유성음화한 제2 g의 경우도 후설 모음 o나 u와 접하게 되면 어김없이 약화의 마지막 단계인 탈락의 과정을 겪게 된다. 제2 g가 후설 모음 앞에 오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paucu>paugu>pauɣa>...pou...>peu
 securu>...seɣuru>...seur>...sur
 facunt>...faɣunt>faont...>font

이상에서 자음들의 마찰음화 현상과 관계된 변화를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모든 자음 중에서 가장 조음력이 약한 마찰음으로 바뀐 자음들은 후설 모음과 인접하게 되면 거의 예외없이 탈락되어 버리고 전설 모음이나 a와 인접하게 되면 다시 강화되는 현상을 보게 된다. 그리고 모음 사이에 놓이지 않고 다른 자음 앞에 놓이는 내파의 위치에 오게 되면 탈락되어 버린다. 따라서 마찰음화 과정에서 한 자음을 가장 약하게 하는 위치가 후설 모음과 인접하게 되는 위치이며 또한 내파의 위치라고 말할 수 있겠다. 전설 모음과 인접하게 되는 위치는 상대적으로 후설 모음과 인접하게 되는 위치보다 강하여, 오히려 강화되는 현상을 보여줌으로 통시적 변화상 강한 생명력을 보유하여 안정된 위치라고 생각된다.

V. 구개음화 (palatalisations)

한 자음이 구개음화 된다는 것은 유성음화나 마찰음화와는 달리 조음상 강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유성음화나 마찰음화는 조음점이 이동하지 않지만 구개음화는 수직적·수평적으로 조음점이 이동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음운 변화이다.¹¹⁾ 따라서 구개음화는 조음점이 비교적 고정되어 있는 치음보다 조음점이 다소 불안정한 연구개음이 더욱 구개음화 현상을 잘 일으킨다. 또한 구개음화는 혀의 상승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요드나 전설 모음과 이웃할 때 가장 많이 일어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구개음화는 조음점에 따라 달라지는 것 뿐 아니라 조음 방법에 따라서도 잘 일으키고 덜 일으키는 정도에 차이가 난다. 즉 폐쇄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데 폐쇄의 정도가 가장 약한 비음이 가장 민감하고 유성음이 비음보다 한 단계 낮고 무성음은 유성음 보다 또

11) 여기서는 수직적·수평적인 이중의 움직임에 의해서 구개음이 되는 것을 구개음화라 하고 이중 하나의 움직임만으로 구개음이 되는 것은 의사구개음화(fausses palatalisations)라고 정의한다.

한 단계가 낮으므로 무성음은 구개음화를 일으키는 정도가 가장 낮은 음들이다. 이것은 뒤에 다시 언급되겠지만 라틴어에서 불어로의 진화 과정에서 구개음화로 강화되었던 음들 중 많은 수가 다시 원 위치로 돌아가서 구개음화가 풀리게 되는데 이들 음 중 대부분이 무성음이라는 것은 위의 사실로써 이해할 수 있다.

또한 l은 조음방법상 쉽게 구개음화하고 r은 조음할 때 혀를 튀기므로 구개음화가 거의 되지 않는다.

여기서는 여러가지의 구개음화 현상을 살펴 보면서 라틴어에서 불어로의 진화 과정에서 위 에서 말한 기본적 사실 이외에 단어 내에서 어떠한 인접 상황이 구개음화 현상을 더욱 촉진시키거나 그 현상을 억제하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연구개음의 구개음화

1) 요드 앞에서

k+y는 라틴어에서는 단어의 내부에서만 존재한다. 그런데 속어 라틴어시대에 모음 앞에 위치한 i와 e는 요드 y로 자음화하는 현상을 일으킨다(k와 인접하게 되면 무성마찰음 ç로 된다). k와 ç는 인접해서 조음점이 앞으로 이동하여 전구개음이 된다.

$$k+\text{ç} > k > \text{ç}^{12)}$$

이렇게 하여 나타난 구개음은 강도와 지속을 갖게 되므로 모음 사이에서 유성음화를 하지 않고 마치 자음 중복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서 앞의 모음을 폐음절화하게 된다.

brachiu > braçū > braçu
glacia > glaça > glaça

2) 전설 모음 앞에서

g가 e, i 앞에서 구개음화하는 경우를 살펴보면

gente > gente > gente
argentu > argentu > arđentu

이 경우에서 보면 g가 구개음화하는 경우는 앞에서 살펴본 마찰음화와는 달리 어두이거나 자음 뒤에 놓이는 위치임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앞의 요드 앞에서도 앞의 모음을 폐음절화하므로 해서 음절의 첫머리에 구개음이 놓이게 됨과 같은 위치이다. 따라서 이 자리는 구개음화의 정의에 의하면 음이 강화되는 위치로 생각할 수 있다.

이제 k가 e, i 앞에서 구개음화하는 경우를 살펴보자.

cervu > çervu > țervu

12) 자음 밑의 <표시는 구개음을 나타낸다.

mercede>merkede>merkede

이 경우에는 g에서와 똑같이 어두이거나 자음 뒤에 놓이는 위치이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를 보면 k는 g와 다를 수 있다.

placere>plaḡere>plaṡere>plait'ere¹³⁾
recemu>raḡemu>raṡemu>rait'emu

이 경우 구개음 t는 치조구개까지 그의 조음점을 앞당겨서 t앞의 모음 a가 ai로 이중모음화 하게 된다. 그리고 k가 모음 사이에 있는 데도 불구하고 유성음화에 이른 마찰음화를 겪지 않고 구개음화를 일으키는 것은 k가 요드 앞에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앞의 모음을 폐음절화하므로 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따라서 요드나 전설 모음들은 강화의 한 요인으로 생각되어 진다.

3) a 앞에서

연구개음이 a 앞에서 구개음화하는 경우를 살펴보면

carbone>ḡarbone>ṡarbone
arca>arḡa>arṡa
virga>verḡa>verṡa

이 경우도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어두이거나 자음 뒤에서 구개음화함을 알 수 있다.

후설 모음 앞에서 g, k는 구개음화 할 수 없은 자명한 일이다. 구개음화의 정의상 모음이 구개에서 발음될 수 있어야 하는데 후설 모음의 경우는 대부분 연구개에서 나므로 구개음화는 불가능하다. 또한 지금까지의 상황으로보아 구개음화는 강화의 대표적인 예이고 후설모음은 자음을 약화시키는 대표적인 경우이므로 이것 또한 어울릴 수 없는 조건이 된다.

4) l 앞에서

자음군 kl은 자음 뒤에서는 전혀 변화하지 않는다.

buccula>boucle, avunculū>oncle
circulu>cercle, cooperculu>couvercle¹⁴⁾

그러나 모음 뒤에서는 구개음화하여 하나의 음이 된다.

macula>makla>maḡa>maṡe(maille)
soliculu>soleklu>soleḡu>soleṡ(soleil)

지금까지의 변화에서 보건데 연구개음 g, k는 자음 뒤에서 구개음화할 때 요드나 전설모

13) t'는 구개음 중에서 가장 앞쪽에 있는 치조구개음을 나타낸다.

14) 이 예들은 전부 proparoxyton의 예인데 자음군 kl을 생성하기 위해서 먼저 어중음 소실로 pénultième의 u가 탈락된다.

음 앞에서 했다. 이것은 요드와 전설모음이 구개음화를 일으키는데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음을 말해준다. l 앞에서의 경우 자음 뒤에서는 전혀 변화하지 않는데 이는 이 위치가 조음상 상당히 안정되어 있는 파열할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이다. l이 k를 내파의 위치로 한정할 수 없음은 앞에서 설명한 이유 때문이다.

2. 다른 자음의 구개음화

연구개음을 제외한 다른 자음들은 요드 앞에서만 구개음화 한다.

1) l과 n

l과 n의 경우 k+y와 과정이 비슷하다. 먼저 모음 앞의 i와 e는 요드로 자음화 하여 그 앞의 자음인 l과 n이 구개음화 한다.

folia>folya>foja>...feuille
 palea>palya>pa|a>...paille
 montanea>montanya>montapa>...montagne

2) t와 s

t와 s는 모두 안정된 치음계열이므로 완전한 구개음화를 하지 않고 반구개음(demi-palatales)에 그친다. 그런데 이때 비성질성 i가 나타나서 a를 이중모음화 시킨다.

ratione>rait'one
 basiare>bais'are
 bassiare>bais's'are

이렇게해서 나타난 구개음들은 변화되어온 특질에 따라 다시 원 위치로 돌아가 구개음화가 풀려지는 현상을 보여준다.¹⁵⁾ 즉 강화되었던 음들이 다시 약화된다. 이 과정에서 반구개음들이 구개음들 보다 더 쉽게 원래의 위치로 돌아가고 무성음들이 유성음이나 비음보다 더 쉽게 원래의 위치로 돌아간다. 또한 구개음들의 경우 어중음 소실에 의해 뒤의 자음과 맞붙을 때 다시 원음으로 돌아감을 볼 수 있는데,

carcere>kartere>kartre
 surgere>sordere>sordre
 pungere>poᅇdere>poindre

이 위치는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발음상 약화가 되기 쉬운 위치이므로 강화의 음운 현상인 구개음화가 존속하기에는 환경이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어 진다.

3. 치찰음화(assibilation)

이 현상은 구개 폐쇄음을 발음하는데 마찰음이 나타남을 의미한다.

15) dépalatalisation

폐쇄적 요소와 마찰적 요소가 하나의 조음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이 치찰음화 현상은 라틴어의 폐쇄음들이 구개음화하였다가 그 이후 탈구개음화를 겪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음운 현상이다.

glacia>glaça>glaşa
 ratione>rait'one>rais'one
 mercede>merçede>merşede
 cervu>çervu>şervu

결국 이 음들은 폐쇄적 요소가 사라짐에 따라 현대 불어의 단순한 마찰음으로 변한다.

glaşa>glaše>glase>...glace
 rais'one>raizon>raiçon>...raison
 merşede>mersede>mercede>...merci
 şervu>şervo>serf>...cerf

지금까지 음운 변화를 살펴보았듯이 라틴어에서 고대불어로의 음운 변화는 거의 대부분 약화의 과정을 겪은 축소 지향적 변화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불어 형성기에는 아직 현대 불어가 갖고 있는 음운상의 특성이 나타나질 않으므로 단순히 라틴어가 음운상 약화되어 현대 불어가 되었다고 볼 수 없음은 물론이다.

VI. 어중음 첨가(épenthèse)

어중음 첨가라는 것은 비자음+l, r이나 치조 마찰음+r 등의 결합 내에서 폐쇄음이 첨가 되는 현상을 말한다. 폐쇄음이 첨가되기 전에 위에서 언급한 어중음 소실 현상이 먼저 일어나게 된다. 이 어중음 첨가 현상은 발음을 편하게 하기 위한 현상으로서, 강화의 현상으로 보기도 하나 여기서는 첨가되는 모든 음이 유성음들이고 첨가의 목적이 발음의 편의를 위한 것이므로 약화의 일종으로 해석하고자 한다.

1. 비자음+l, r 결합내에서의 어중음 첨가

어중음 소실현상이 일어난 후 일종의 탈비모음화 되면서 그 비모음과 동위치에서 조음되는 유성 폐쇄음이 첨가된다.

ml>mbl, nr>ndr, mr>mbr
 cumulu>kumlu>comble
 simulare>semlare>sembler
 camara>çamra>chambre
 cinere>kenre>cendre
 ponere>ponre>pondre

비자음은 연구개 뒷부분을 낮춤으로써 비강 쪽으로 기류를 보내서 조음되는데 그 뒤에 오는 l과 r는 구강의 열림 정도가 큰 자음들이다. 따라서 이 두 음의 결합을 연속적으로 발음하기란 쉽지가 않으므로 그 중간 정도의 구강 열림을 요구하는 해당 유성 폐쇄음이 결합 사이에 첨가된다.

2. 치조 마찰음+r

r은 상당히 강한 조음력을 요구하는데 동위치음인 s와 z 뒤에서는 r의 떨림을 발음하는데 지장을 받게 된다. 그래서 s 뒤에서는 t가, z 뒤에서는 d가 첨가된다.

essere>essre>estre
cosere>kozre>kozdre(coudre)

groupe lr의 경우도 r의 떨림을 발음하기 위해 d가 첨가된다.

molere>molre>moldre>...moudre

이상의 어중음 첨가에 의해 나타나는 음들은 환경상의 제약에 의해 양순음과 치조음으로 한정된다. 이것은 자음군 내에서의 음의 조음상의 괴리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VII. 結

지금까지 자음이 겪는 음운 변화들을 단어 내에서의 위치와 인접모음과의 관련하여서 살펴 보았다. 그 결과 변화하는 과정에서 각각의 음들은 대략 다음과 같은 원리로 보존되거나 약화 혹은 소실됨을 알 수 있었다.

1. 라틴어에서 불어로 진화하는데 가장 먼저 겪는 변화가 유성음화이고 이 유성음화는 무성자음이 모음 사이에 놓일 때 일어난다. 따라서 모음간의 위치는 자음이 파열될 수 있는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인접 모음들의 영향으로 불안정한 위치가 된다. 그러나 이경우에도 전설모음과 이웃하는 자음보다 후설모음과 이웃하는 자음이 더 빨리 유성음화되고 또 그 이후에 대부분 탈락되어 버린다.

2. 두번째의 약화의 과정은 마찰음화이다. 모든 자음 중에서 마찰음은 조음력이 가장 약해서 약센트나 이웃하는 음들의 영향에 아주 민감한데 후설 모음과 인접하게 되면 거의 탈락되어 버리고 전설 모음과 인접하게 되면 다시 강화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그리고 모음 사이에 놓이지 않고 다른 자음 앞에 놓이는 내파의 위치에 있게 되면 탈락되어 버린다. 따라서 후설 모음과 인접하는 위치와 내파의 위치는 음운 변화를 가장 쉽게 받을 수 있는 불안정한 위치이고 전설 모음과 인접하게 되는 위치는 상대적으로 강한 위치라고 생각된다.

3. 구개음화는 유성음화와 마찰음화와는 달리 조음상 강화되는 음운변화이다. 또한 구개음화는 수직적·수평적으로 조음절이 이동하는 것을 전제하므로 해서 처음보다 연구개음이 구개음화 현상을 더 잘 일으키고 요드나 전설모음과 이웃할 때 가장 많이 일어난다. 그리고 단어 내의 위치상으로는 어두와 자음 뒤에서 많이 일어나는데 이는 이 위치가 강화되기에 적합한 위치임을 나타낸다. 그러나 강화된 구개음들은 그후에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 탈구개음화 현상이 진행되는데 무성음들이 유성음이나 비음보다 더 쉽게 원래의 위치로 돌아가고, 반구개음들이 구개음보다 더 쉽게 원래의 위치로 돌아간다. 따라서 처음이 변화를 가장 안받는 음이며 그 다음에 연구개음이고 순음이 약화되기 가장 쉬운 음이 된다.

이상에서 라틴어에서 불어로의 음운 변화상의 특징은, 하나의 자음이 조음방법과 조음절에 따라서 또 단어 내에서 그것이 놓인 위치에 따라서 변화의 상대적 강도가 달라질 수 있지만 모든 변화에서 지향하는 것은 축소지향적 약화와 탈락의 방향임을 알 수 있다.

참 고 문 헌

- Anderson, J.M. (1980) *Structural Aspects of Language Change*, Longman, London.
- Bonnard, H. (1982) *Synopsis de phonétique historique*, Jouve, Paris.
- Bourciez, E. et J. (1982) *Phonétique française*, Klincksieck, Paris.
- Brunot, F. (1899) *Précis de grammaire historique de la langue française*, Masson et C. éditeurs, Paris.
- Chen, U.F. (1973) *Essai sur la phonologie française*, Nizet, Paris.
- Ernout, A. (1974) *Morphologie historique du latin*, Klincksieck, Paris.
- La Chaussée, F. (1982) *Initiation à la phonétique historique de l'ancien français*, Klincksieck, Paris.
- Marouzeau, J. (1975) *Du latin au français*, Société d'édition, Paris.
- Martinet, A. (1973) 'La palatalisation du roman septentrional', *Travaux de linguistique et de littérature* 11.
- Serbat, G. (1980) *Les structures du latin*, Edition A. & J., Picard, Paris.
- Straka, G. (1965) 'Naissance et disparition des consonnes palatales dans l'évolution du latin au français,' *Travaux de linguistique et de littérature* 3.

《Résumé》

**Sur les changements consonantiques dans l'évolution
du latin au français**

Chang Chae-seong

Un phonème peut aboutir à des phonèmes entièrement différents à partir de réalisations différentes. L'évolution phonétique du latin au français est due aux différentes réalisations d'un phonème. La résistance d'un phonème aux altérations dépend de la mode et le point d'articulation et aussi de la position à l'intérieur de la syllabe.

1. La position intervocalique est, pour une consonne sourde, une position périlleuse, qui l'expose à la sonorisation. La sonorisation est le premier degré de l'affaiblissement. Dans ce cas, le phonème qui confine à la voyelle postérieure se sonorise plus vite que celui qui confine à la voyelle antérieure.

2. La spirantisation d'une occlusive, comme la sonorisation, l'effet d'un affaiblissement. De toutes les consonnes, les spirantes ont l'articulation la moins énergique. Elles sont donc particulièrement sensibles à l'influence des phonèmes voisins. Mais la spirantisation n'est pas nécessairement liée à la position intervocalique, la position implosive peut suffire à entraîner la spirantisation d'une occlusive et la position auprès d'une voyelle postérieure amuît les spirantes.

3. La palatalisation d'une consonne est l'effet d'un renforcement articulaire. Elle comporte un double déplacement, vertical et horizontal. De tous les phonèmes, le yod facilite le plus la palatalisation de la consonne voisine. Les autres phonèmes qui activent la palatalisation de la consonne précédente sont les voyelles i, e et a. Les consonnes vélares sont les moins résistantes à la palatalisation parce qu'elles ont l'articulation la moins fixe. Les alvéodentales sont plus résistantes. Les alvéodentales sont plus résistantes. Une consonne se palatalise à la position de l'initiale du mot et à la position appuyée. Mais les palatales, en raison de l'affaiblissement articulaire, perdent leur élément occlusif et deviennent les spirantes simples de français moderne.

Nous pouvons donc conclure que les consonnes se sont toujours affaiblies dans l'évolution du latin au français.